



“우리 色으로 승부” 벤투호 아시안컵 사냥 나섰다

대표팀 17명 격전지 UAE로 출국...필리핀·키르기스스탄·중국과 C조 기성용·지동원 등 해외파 26일 현지로...손흥민, 조별리그 3차전 합류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향해 출격하는 파울루 벤투 감독(사진)은 “우리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모든 상대 팀을 존중할 것”이라고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벤투 감독은 아시안컵 결전지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나기 전인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상대에 따라 세부적으로 전략을 맞춰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은 59년 만에 아시아

컵 정상 등극을 노린다.

대표팀 사령탑 부임 이후 첫 공식 대회에 출전하는 벤투 감독은 “큰 대회엔 항상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쟁력 있는 상대가 많이 출전하기 때문에 변수도 많고 매 순간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준비하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C조에 편성된 우리 대표팀은 7일 필리핀을 시작으로, 12일 키르기스스탄, 16일 중국과 차례로 조

별 리그 경기를 치른다.

비교적 대진운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벤투 감독은 모든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벤투 감독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알거나 열정과 의욕을 갖고 준비하는지, 그리고 상대를 얼마만큼 존중하면서 준비하는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온이 높은 현지 날씨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도 관건이지만 벤투 감독은 “현지에서 충분한 적응 기간이 있다”며 “우리 팀은 물론 다른 팀에게도 날씨가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 0시 15분에 출발하는 아부다비행 항공기엔 유립 등 해외파 선수 8명이 빠진 17명(예비 엔트리

2명 포함)의 대표팀 선수들만 됐다.

해외파 선수들은 26일 UAE 현지에서 합류할 예정이며, 손흥민(토트넘)은 대한축구협회와 소속팀의 사전 합의에 따라 조별리그 2차전 이후에야 벤투호에 합류한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은 경기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 우리 팀에 아주 중요한 선수”라며 “그렇지만 손흥민 합류 시점 문제는 내가 부담하기 전에 합의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흥민 없이 어떻게 팀을 운영할지, 그리고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엔 그를 팀에 포함해 어떻게 잘 운영할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중흥무진’ 기성용

프리미어리그 풀럼전 90분 활약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기성용(뉴캐슬)이 대표팀 합류 전 마지막 경기에서 풀타임 활약했다.

기성용은 23일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18-2019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풀럼과 홈경기에서 90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다. 그는 5-4-1 전술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그는 전반 36분 페널티아크 오른쪽 뒤에서 직접 오른발 슈팅을 날리기도 했다. 공은 골대 왼쪽으로 살짝 빗겨나갔다.

후반전에도 기성용은 활발하게 움직였다. 프리킥과 코너킥 전담 키커로 나서서 지휘관 역할을 톡톡히 했다. 뉴캐슬과 풀럼이 0-0으로 비겨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다.

/연합뉴스

‘연봉 킹’ 전북

K리그 20개 구단 연봉 발표 177억4693만원...광주 FC 19위

K리그 최강팀 전북 현대가 연봉에서도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2018시즌 K리그 1 11개 구단과 K리그2 9개 구단의 선수 연봉을 발표했다.

군정팀인 상주 상무와 아산 무궁화를 제외한 선수 연봉은 기본급과 K리그 경기에 대한 수당(출전수당, 승리수당, 무승부수당, 기타수당 등)을 더해 산출됐다.

산출 대상은 2018시즌 리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 구단 등록된 선수들로, 시즌 중반에 이적하거나 임대, 계약 해지한 선수는 제외됐다.

‘절대 1강’으로 리그 2연패에 성공한 전북은 177억 4693만 6000원을 지출하며 연봉에서도 1위를 찍었다.

전북의 연봉 총액은 K리그 11개 구단 연봉 총액 808억 1797만 4000원의 22%를 차지한다. 전북 선수단의 평균 연봉도 5억 2196만원 9000원으로 K리그 전체 평균 연봉 1억 9808만 3000원을 크게 넘어섰다.

국내 선수 연봉 ‘톱5’ 자리에도 모두 전북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 선수 ‘톱 3’도 전북이 휩쓸었다.

로페즈(12억 8370만원), 티아고(12억 4600만원), 아르디아노(12억 2575만원) 등 전북의 외국인 선수 세 명이 연봉 1-3위를 차지했고, 수원 데얀(9억 4485만원), 울산 주니오(8억 6501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전북에 이어 울산 현대(93억 6036만 3000원), FC 서울(81억 5909만원), 수원 삼성(80억 6145만 9000원) 순으로 연봉을 지출했다.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북에 이어 울산이 2억 6743만 9000원으로 2위에 올랐고 제주 유나이티드(2억 1222만 9000원), 서울(2억 397만 7000원)순이었다.

K리그2에서는 부산 아이파크가 41억 5116만 7000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지출했지만, K리그 1 최저연봉총액 팀인 대구 FC의 43억 1440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원FC가 33억 5930만 8000원, 대전 시티즌이 32억 7281만 1000원, 성남 FC가 29억 545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 FC는 19억 3101만원으로 K리그2 연봉 89위이다. 평균 연봉은 6229만 1000원이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피겨 미래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겨울 왕자 차준환이 23일 오후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18 KB금융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겸 2019 피겨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퀸의 미소 임은수가 23일 오후 2018 KB금융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겸 2019 피겨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차준환·임은수 남·여 싱글 정상에

전국 남녀 랭킹대회·국가대표 1차 선발전

한국 피겨 남자싱글의 간판 차준환(휘문고)이 두 차례 쿼드러플(4회전) 점프를 앞세운 압도적인 기량으로 2018 KB금융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 겸 2019 피겨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우승했다.

차준환은 23일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대회 남자싱글 1그룹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2.83점에 예술점수(PCS) 86.90점을 합쳐 179.73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77.28점을 따낸 차준환은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합친 총점에서 257.01점을 기록, 2위 이준형(단국대·201.27점)을 무려 55.74점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차준환은 이번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에 두 차례 출전해 모두 동메달을 따냈고, ‘피겨퀸’ 김연아 이후 9년 만에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 나서 역시 동메달을 목에 걸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지난 16일 전국동계체전 서울시 예선을 시작으로 3주 연속 대회에 나선 차준환은 체력 싸움에서 승리하며 랭킹 대회까지 정상에 올랐다.

이준형이 프리스케이팅에서 137.55점을 따낸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63.27점)를 합쳐 201.27점으로 2위에 올랐고, 차영현(대화중)이 총점 193.14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임은수(한강중)는 여자 싱글 정상에 올라 ‘차세대 피겨퀸’ 자리를 꿰찼다.

임은수는 프리스케이팅에서 127.81점(기술점수 66.97점·예술점수 61.84점·감점 1)을 받아 전

날 쇼트프로그램(68.98점) 점수를 합쳐 총점 196.79점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5차에서 동메달을 따낸 김연아 이후 9년 만에 한국 여자 선수로 메달리스트에 오른 임은수는 이번 랭킹 대회에서 개인 통산 첫 우승을 일궜다.

쇼트프로그램에서 점프 난조로 53.47점에 그쳐 9위로 밀린 ‘디빙 챔피언’ 유영(과천중)은 프리스케이팅에서 130.06점으로 출전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 총점 183.53점으로 단숨에 종합 2위로 뛰어올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반면 쇼트프로그램에서 64.98점으로 중간 순위 2위를 차지했던 김예림(도장중)은 프리스케이팅에서 클린 연기를 놓치면서 총점 181.44점으로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